



**맹추위 속 체력훈련**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25일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소집된 대표팀은 26일 0시35분 발 항공편으로 카타르로 건너가 전지훈련을 가진 뒤 내달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예선 4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사우디 원정 정예 멤버 총출동

올림픽 최종예선 4차전 21명 확정 ... 광주FC 김동섭 최전방 공격수로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치르는 올림픽 최종예선 4차전(원정)에 참가할 선수 21명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킹스컵대회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강호를 상대로 선전한 선수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태국과의 킹스컵 1차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최전방 공격수 광주 FC의 김동섭을 비롯해 체진 스트라이커 백성동(이와타), 좌우 미드필더 김보경(세레소 오사카)과 서정진(전북 현대)이 공격진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한국영(쇼난)과 윙백 가람(성남)도 부름을 받았다.

좌우 수비수 윤석영(전남)과 오재석(강원), 중앙수비수 홍정호(제주)와 김영권(오미아), 골키퍼 이범영(부산)도 다시 발탁됐다.

홍명보 감독은 지금까지 최고의 경기로 평가된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가동한 전형을 그대로 구사할 전력을 확보했다.

한국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승점 7(2승1무)를 기록해 오만(승점 4·1승1무1패), 카타르(승점 3·3무), 사우디(승점 1·1무2패)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조 1위를 차지해야 런던올림픽 본선에 직행할 수 있어 이번 4차전에서 이겨 승점 3을

보태면 남은 경기를 한결 여유롭게 치를 수 있다.

조 2위가 되면 B조, C조 2위와 별도의 리그전을 벌여 1위를 한 뒤 아프리카 4위를 확정할 세네갈과 플레이오프를 치러 이겨야 본선 출전권을 얻는다.

이날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모여 몸을 풀 대표팀은 26일 0시35분

발 항공편으로 카타르로 떠났다. /연합뉴스

### ◇사우디 원정 4차전 참가선수 명단

▲FW = 김동섭(광주FC) 김현성(FC서울) ▲DF = 윤석영(전남 드래곤즈) 황도연(대전 시티즌) 김영권(오미아) 장현수(FC도쿄) 홍정호(제주 유나이티드) 오재석(강원FC) 정동호(가이내라 토티리)

▲MF = 김보경(세레소 오사카) 윤빛가람(경남FC) 박종우(부산 아이파크) 한국영(쇼난 벨마레) 조영철(오미아) 정우영(교토

상가) 김태환(FC서울) 서정진(전북 현대) 백성동(주빌로 이와타) 김민우(사간도스)

▲DF = 윤석영(전남 드래곤즈) 황도연(대전 시티즌) 김영권(오미아) 장현수(FC도쿄) 홍정호(제주 유나이티드) 오재석(강원FC) 정동호(가이내라 토티리)

▲MF = 김보경(세레소 오사카) 윤빛가람(경남FC) 박종우(부산 아이파크) 한국영(쇼난 벨마레) 조영철(오미아) 정우영(교토

▲GK = 김승규(울산 현대) 이범영(부산 아이파크)

### 광주 FC 박민·이정래 영입 '수비 강화'

광주 FC가 '신입생' 박민과 이정래를 앞세워 수비 강화에 나선다.

최만희 감독이 이끄는 광주 FC가 수비수 박민(25)과 골키퍼 이정래(32)를 새로 영입해 중국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경남 FC에 입단한 박민은 184cm의 큰 키를 이용한 공중볼 장악 능력이 좋으며 시야가 넓고 지능적인 플레이가 장점이다. 타고난 스피드와 유연함을 앞세워 지난 시즌까지 정규리그 33경기에 출전했다.

2002년 전남 드래곤즈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이정래는 10년차 베테랑 골키퍼다.

2006년 경남으로 등지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실력발휘에 나선 이정래는 2007년 주전 골키퍼로 경남의 골문을 지켰다.

광주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박호진에 이어 이정래로 골문 봉쇄에 나서면서 수비진에 힘을 실게 됐다.

구단 관계자는 "올 시즌 새로 합류한 박민, 이정래, 장경진 등은 2012시즌 광주의 빚마당을 책임져 줄 주축 선수가 될 것이다"며 "유명 영입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실전 훈련에 돌입해 시즌 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민 이정래

한편 지난 23일 중국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광주는 다음달 18일까지 쿤밍과 상하이에서 훈련을 실시한 뒤 오는 3월 4일 상무와 K리그 개막전을 갖는다. 홈 개막전은 오는 3월11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치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오늘 아침... 둘 중 한명은 운다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



바르셀로나 메시

### 바르샤 VS 레알 국왕컵 8강 2차전

메시-호날두 라이벌 대결

레알, 2골 이상 이겨야 4강

가고 있다.

호날두가 23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메시는 22골로 턱밑에서 추격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호날두가 40골로 득점왕에 올랐고, 메시는 31골로 한참 뒤졌지만 이번 시즌에는 정규리그 경기의 절반 이상을 치른 상황에서 '박빙의 골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무리뉴 감독과 파르디올라 감독의 신경전도 날카롭다.

레알 마드리드의 무리뉴 감독은 24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르셀로나전에 어떤 전술을 쓸지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이번 경기 결과가 나는 물론 팀의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뉴 감독은 국왕컵 8강 1차전에서 패한 뒤 일부 팬들로부터 사임 압력까지 받을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게다가 수비수 패페가 경기 도중 메시의 손을 일부러 밟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팀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무리뉴 감독은 이번 국왕컵 8강 2차전에서 초반부터 공격적인 전술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바르셀로나의 파르디올라 감독은 한결 여유롭다.

그는 2008년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와의 역대전적에서 9승3무1패로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안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너, 허부언더코팅, 자동차경비일체, 빗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 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길)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최저가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SINCE 1901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